

교사는 학생 위한 인적환경

꿈을 키워주는 곳 아냐? 그런데 선생이란 것들이 너처럼 남의 탓하는 거 아주 전문적으로 좋아하더라구. 이렇게 도둑질이나 하며 당신을 탓하며 나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딴것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었지만, 좋게 살고 싶은 내 마음 알아주는 선생님이 혹시 제실까 찾아왔지만 제맛할 줄 모르는 꼬라지들 보면 다 틀렸어. 은갖정이 다 떨어졌단말야. 닳고 싶은 선생이 없더라구. 그런데 뭐? 당신의 잘못이 없었어? 아, 이 비겁한 위선자야! 당신 직업이 선생 맞아? 나는 돈 내고 사람 공부하는 학생이고, 당신은 돈 받고 사람 가르치는 선생직업이 분명하잖아! 사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 당장 내 눈앞에서 나를 가르쳐야 할 선생이라는 직업의 당신이 분명하잖아! 이런 좀 도둑 경향이 쌓이고 쌓이면 소도둑이 되겠지, 그때 가서 비로소 잘못 사는 내 인생에 대해 당신들 책임 없다는 뻔뻔한 전문직업의 양심에다가 잘못된 내 인생의 비수를 꽂아주고 말겠어."

본노하는 마성은 싸늘한 비웃음과 함께 증오를 토해내고 있었다. 이것은 훗날이 되는 어린 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었다. 무서웠다. 이것은 자신의 위선을 향한 외침이었다. 마침내 위선의 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도둑질을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터진 예상하지 못했던 선생님의 '울릭' 치밀어 오르는 울음 섞인 목소리였기에 학생들은 모두 놀랐다. 범접치 못할 기운이 서려있는 선생님의 얼굴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학생들이었다. 일반적인 현실감각으로서는 이해되는 않는 명확적인 고백이라고 강변할지도 모르겠으나 박 선생은 도둑질한 이름 모를 제자 앞에 교사로서의 책임을 가식없이 고백한 것이었다. 자신이야말로 그 학생에게 도둑질을 가르친 선생임을 확연히 인정하면서 힘없이 주저앉아 그 학생에 대한 속죄의 무릎을 꿇었다.

"내가 도둑질을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일그러진 제자의 환영이 이제 보니 바로 자신의 진실이었음을 바로 알아듣는 소리였다. 마치 돈오의 계승(僞頌)인 듯, 방만(倣漫)한 교단생활에서 무디어졌던 초발심이 깨어나듯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온 소리였다. 그것은 곧 자신의 법성(法聲)이었다.

사람인격을 가르치다면서 '남탓'만 하는 위선자들에게 제자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사회와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 지식을 전수하는 강사가 있을지언정 교사는 왜 있었는가? 여기한 학생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을 것인가? 그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가정에 더없이 소중한 자녀이며 귀한 인생이어야 할 한사람 비평학사의 어두운 미래징후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교사가 지지 않고 서로의 탓만으로 미룰 수는 없었기에 모두 혼자 짊어지려는 벅찬 양심이었으며 혼자 감당하기엔



사진=박재원 기자

대회에서도 2등씩이나 했다는 것... 바로 감동 받았던 학생들이 스스로 해낸 작품들이었다. 특히, 훗날이 될 돈이 선생님 앞으로 남몰래 찾아온 것에 대해 이 교사가 밝힘으로서 학생들의 선의 지를 강화하는 본성교육(本性教育)의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훌륭한 학생의 거듭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들도 뜨겁게 박수로 화답해 주었다. 장래에 사회적 비리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한 사람의 범죄성향이 지워졌으며 모두가 본성의 빛을 쬐는 장면이었다. 이 학생은 훌륭히 변했고 변한 그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나 불경 등 말씀 따라 뒤우침은 그때그때의 카타르시스(Katharsis)에 지나지 않으며 지속하지 않는다. 교사가 뒤우침을 보임으로써 만들어지는 창조현상이었던 것이다.

'말씀'으로 위장하는 교사 앞에 가슴으로 뒤우치는 제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인과법칙(因果法則)이 파동으로 전하는 호환작용(互遷作用)이기 때문이다. 이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편견도 필요 없게 되었고, 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은 태양 같은 마음으로 밝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교사의 직책신실(職責信實)에서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윤리를 배우지 않았겠는가? 가정과 사회가 아무리 악습덩이라도 하루를 거의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교사의 인격에서 주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의 이 사태를 남들은 어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므로 마땅히 교사가 1차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그가 보여준 셈이었다. 직책에 대한 그러한 जि조, 그러한 사람이 일관하여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한 가령비에 웃이 젖어가듯이 학생도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변해갈 것이다. 향을 쓴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난다지 않는가? 교사가 학생들의 현명한 친구처럼 좋은 인적환경이 되어 주면 학생들은 반드시 환경따라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그의 사고를 여일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은 장차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대통령직을 맡든 그 무엇을 맡든 기만, 유혹과 태만에 넘어가지 않고 제 맡은 직책에 신실한 국민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꿈으로 충만해 있었음과 다름 아니다.

그의 가시적(可視的) 동기부여는 학생들이 지니고 다니는 상한 감정들을 녹여 주었고 양심이 살아있는 행복한 학급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에게 교실은 마음을 닦는 법당이 되었고 학생은 감동을 주는 부처가 되었다. 이제 그는 가장 낮은 섬기는 자로서 가장 뛰어난 이해하는 자로서 가장 깊어진 사랑하는 자로서 환희로운 믿음의 교실역사를 지켜가게 될 것이다.

너무도 힘겨운 것이었다. 그의 한마디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발견했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기다렸던 선생님을, 닳고 싶은 선생님을 발견했던 것이다. 모든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옹호하려는 그였다.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모은 두 손을 떼지 못하는 선생님의 눈에서는 두 줄기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책임을 혼자 감당하려는 담임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순진한 감정도 억제할 수 없이 터져나오고 말았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3일 후에 그 수줍었던 돈이 선생님 앞으로 남몰래 찾아온 것도, 수업분위기가 아주 달라졌다는 것도, 학급성적이 오르고, 학급대학 환경영연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7. 중국 거사불교 대표 조박초 거사

조박초 거사(1907~2000)는 前 중국불교협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불교학자이며, 서예가, 정치가인 동시에 사회 활동가다. 중국불교협회장, 중국불화원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수석, 중국적십자사업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조 박초는 평소 "공산주의는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지만, 불교는 무엇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종교"라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 종교는 꿈과 계시 속에서 이뤄진 미신이지만 불교는 깬 꿈속에서 형성된 과학적, 철학적, 문화적인 종합예술종교"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종교가 어떤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불교 역시 국가 관리 하에 놓여 무종교 해

남어서서 못하지만, 문화재는 한 번 사라지면 1만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조박초 거사의 뜻에 공감한 모 주석은 그를 정무위원으로 위촉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정책을 총괄적으로 맡겼다. 지금의 아미산, 구화산, 보타산, 오대산 등 4대 성지를 중심으로 10만 사찰과 80만 스님이 대부분 조박초 거사에 의해 양성됐다. 또한 양자강 이북의 교종·밀종 사찰, 이남의



중국 병령사(炳靈寺)의 조박초(趙朴初) 거사의 글씨.

中 문화정책 총괄 정무위원으로 활약... 중국 불교 증흥

의 시대가 계속됐다. 중국불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80년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때문이었다. 조박초 거사는 중국불교협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등소평의 혁명동지로서 중국불교를 증흥시킨 공로자다.

중국은 공산혁명 이후 다양한 시각으로 불교 연구가 진행됐다. 조박초는 불교가 송명리학과 더불어 나중에 중국 교육 사상과도 흡수돼 고대 전통 철학의 일부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불상과 불구를 파괴하고 스님들을 죽이고 불경과 불서들을 보는 대로 태울 당시, 그는 모택동 사진을 이용해 불교문화재들을 지켰다. 조 박초는 모택동 사진 100만 장을 찍어 사찰 벽에 붙이게 "우리의 지도자 모택동 주석 사진에 상해를 입히는 자는 상부에 고발해 직격탄부하겠다"고 외쳤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100년을

유서 깊은 선종사찰이 복구되고, 불교대학과 선원이 문을 열었다. 중국 문화는 당·송대에 황금기를 형성했다. 당·송 8대가 가운데 이태백, 소동파가 그 대표이다. 이들은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심한 역경 속에서 그 맥을 이어갔던 중국 불교였지만 근신이 선지식을 청법해 그 법문을 단정해 실천했으니 생활 불교의 시금석이 됐다. 천하 선종이 5가 7종으로 나뉘어 기원을 토했으나 대부분 지방장관이나 중앙 관리에 의해 탐진치 삼독을 제어하고 겸양의 도를 실천하게 했다.

중국 불교는 학문과 수행을 함께 겸비해 정진해 나가며, 특징이념의 정권과 관계없이 세계불교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다. 유교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가르쳤으나 세속정치로서 탐관오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불교는 자비로써 부자들에게 보

들의 심터를 만들어 제공하게 했다. 정신적인 요양소로 자리 잡은 사찰에서 인민들은 인과를 철저히 믿고 마음을 깨끗이 다스려 오늘날 중국의 존재가 불교 속에서 배태됐음을 자랑하게 됐다. 조박초 거사는 1980년대 중공이 들어 몸이 쇠약해졌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받고 자신 또한 근신하며 전국 유명사찰을 다니면서 기도 참회해 96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조박초 거사의 글씨는 중국 여러 사찰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정무실천에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아 새로운 불교문화재를 창출하는데 여러 사람의 지혜를 한데 모았다. 조 박초는 한국에도 두 차례 왔다. 특히 일본 불교를 좋아했던 그는 90세 생일을 일본에서 보내기도 했다. 저서에는 <적수집(積手集)> <편석집(片石集)> <불교상식문답> 등이 있다.

신용신인(신용보증)가수
 ■계량: 순금(순금) 100g
 ■높이: 1.5m
 ■직경: 1.5cm
 ■중량: 1.5kg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륜대(운장대)

법륜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운장대 기구입니다

법륜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륜대에 복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님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운장대입니다.

[손 길 따라 돌리지는 법륜대]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 경계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정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0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사찰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낼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